

다산포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전공)

조선시대 개혁 군주 정조가 가장 사랑했던 신하는 과연 누구였을까? 정조 시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조는 어느 특정인만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정약옹과 이가환을 가장 사랑했다.

정약옹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가환은 생소하다. 하지만 이가환은 정조가 가장 신뢰한 인물이다. 정약옹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약옹은 이가환이 죽고 나서 장문의 묘지명을 지었다. 그것도 비문김개하해서 말이다.

이가환은 그 유명한 실학자 성호 이익의 후손으로 본관은 여주였다. 호는 금대(鎭大)·정헌(貞軒). 이익의 종손으로, 아버지는 이용휴이다. 1771년(영조 47) 진사가 되고, 35세 되던 1777년(정조 1)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가환은 장희빈 사건으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이익의 친형인 이집의 종손으로 태어났기에,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조선 후기 당쟁의 한복판에 설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수원 화성 건설의 책임자 이가환(李家煥)

어린 시절부터 천재란 소리를 들었던 이가환은 성리학과 실학을 동시에 공부하였다. 기억력이 뛰어난 그는 정약옹이 표현한 대로 한 번 본 글은 평생 동안 잊지 않았다. 제가백가에서부터 천문학·수학 그리고 수의학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였다. 이가환은 정조16년인 1792년 9월에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 곧이어 대사성으로 임명하였다. 이가환은 이제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런 성장으로 인하여 노론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이가환을 중앙 관직에서 빼내어 개성 유수로 임명하였다. 정조가 이가환을 개성 유수로 임명하는 문제로 이틀간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좌의정인 채제공에게 할 정도로 이가환은 정조의 정국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이가환이 개성 유수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론은 그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그가 이집(李齊)의 종손이었기 때문이다. 이집은 경종 재위시에 노론을 공박했던 인물로 끝내 노론에 의해 대역죄인으로 몰려 국문중에 맞아 죽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노론의 핵심 인물인 심환지는 이가환이 역적 이집의 후예라는 이유로 조정에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가환의 종조(宗祖)에 대해서는 나도 그 이름을 익히 듣고 있으나, 종조는 종조이고 종손(宗孫)은 종손이다. 재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겼는데 이가

환이 문사(文士)가 아니라는 말인가. 경 또한 과구(科臼) 중의 사람으로 옛 습관을 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사람들을 따라 하고 있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며 심환지를 나무랐다. 그렇게 이가환을 지켜 준 것이다.

정조는 1795년(정조 19) 2월 화성으로 어머니 혜경궁홍씨 회갑잔찬연을 다녀온 후 이가환에게 자신의 개혁 타전인 수원 화성의 축성을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 모두를 책임지고 맡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약옹에게도 민첩하게 이가환을 도와 자신의 정국 운영 구상을 완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조는 상황(上王)이 되어 화성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고 했다.

정조가 이처럼 이가환에게 수원 화성의 마무리를 부탁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열정 때문이었다. 이가환은 자신이 가진 실학 정신과 건축학·토목학 등 서양 과학 기술을 수원 화성 축성에 적용하였다. 천재가 가진 상상력과 열정 그리고 그의 기술력은 화성성역 총리대신인 채제공의 리더십과 함께 수원 화성을 세계 최고의 성곽으로 만들게 했다. 그러나 그를 견제하는 노론의 공격으로 그는 조선을 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채 정조 죽음 이후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수원 화성을 이야기할 때 정조와 채제공·정약옹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마무리 역할에 이가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당대 최고의 천재가 참여하였던 화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실학 정신으로 가득했던 이가환의 열정이 담겨 있는 수원 화성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출퇴근길에 늘 만나는 노인이 있다. 폐지를 가득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여태 얼굴을 보지 못했었다. 작은 키, 굵은 허리로 무겁고 커다란 수레를 끌자니 얼굴이 땅에 닿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었다. 늘 안타까웠는데, 뜻밖에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첫눈 덕분이었다. 그날 퇴근길, 첫눈이 평평 내리자 그 할머니도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들고 눈을 바라보고 계셨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당시에 수레를 끄는 일이 더 수고스럽고 고단해지려면, 개의치 않고 해맑게 웃고 계셨다. 한참 할머니를 웃게 만든 것은 첫눈이었다.

급이든 첫눈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나도 따라 고개를 드는 순간, 4층 병원 창문으로 환자가 손을 내밀고 발랄한 표정으로 첫눈을 받고 있다. 환자의 미소가 송이송이 하얗게 내리는 것 같았다.

첫눈은 묘한 마력, 마법을 지녔다. 우선 수많은 사람을 소환하게 하는 힘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멀리 이사 간 이웃길 경자 여동생도 데려온다.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는 병욱이 삼촌도 불러오고, 도회지로 전학을 간 석태와 그 누나도 불러온다. 잊힌 친구들도 하나 둘 모두 불러낸다. 그들도 첫눈을 따라 평평 나에게로 온다. 첫눈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이는 없다. 첫눈은

첫눈처럼 오소서!

수많은 그리운 이의 눈동자와 함께 내리는 천 눈인 셈이다.

첫눈은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불러낸다. 그리고 자신의 순결한 몸으로 정화를 시켜준다. 삶의 슬픔과 고통, 쓸쓸한 것들이 녹듯 녹아내린다. 나쁜 기억도 덮여 버리고, 미움도 사르르 녹여 준다. 그리고 맑게 우리 몸에도 스며들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어 삶의 힘으로 솟는다.

첫눈은 세상을 동화 세상으로 만들고 사람들도 순진한 아이로 만들어 버린다. 첫눈 오는 날, 거리를 걸어보면 영악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온통 체면을 벗어던진 순진한 아이들로 세상은 활기차고 모처럼 살 만한, 온통 동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

첫눈은 혼자 오지 않는다. 사랑을 싣고 온다.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수레 가득 선물 같은 사랑이 실려 있을 것 같다. 헤어진 사람도 만날 것 같고, 첫사랑도 만날 것 같다. 실상 삶이야 고달프지 않은 때가 없지만 그나마 사랑 때문에 살 만하지 않던가. 첫눈은 지친 사람의 어깨 위로 내리는 따뜻한 포근한 위로이자 사랑이다. 농부는 평평 쏟아지는 첫눈을 보고 풍년을 기약하고, 노처녀는 결혼을, 취업 준비생은 취업을, 환자는 병원을 나가는 꿈을 꾸게 한다.

첫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비나 바람은 불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첫눈만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첫눈은 '무담시' 기다려지는 애인 같은 이다.

그래서인지 첫눈은 살며시 밤에 온다. 아침에 문을 열면, 하얀 떡가루처럼 마당에 내려앉은 도둑눈을 본 적이 더 많다. 마당에도 장독대에도 담장에도 쌓인 잔 눈을 보며 밤새 꿀잠 잠던 일에 절로 낮이 붉어진 다. 첫눈은 이왕 올 테면 퇴근 무렵 오는 게 좋다. 일과

를 마치고 가볍하게 맞이하고 싶은 게 첫눈이다. 모두 함께 거리로 나와 눈을 맞이하며 환호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겁다.

올해 첫눈은 이왕이면 꽃눈보다 소나기눈으로 오면 좋겠다. 사락사락 내려서 상처도 아물게 해주고 이웃의 아픔도 씻어 주었으면 좋겠다. 선거판으로 이쪽저쪽 갈라진 것들을 온통 하얗게 하나로 만들어 주고, 미움도 거짓도 분열도 온통 하나로 하얗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늘여만 가는 신중 무기들도 다 덮여 버리고, 철책선 위로 교도소 위로도 눈꽃이 하얗게 피었으면 좋겠다. 가난도 아픔도 모두 덮여 버리고 봄처럼 싱그럽게 왔으면 좋겠다. 신나게 눈에서 땀구는 저 아이들이 울겨울을 지나면 부쩍 자라듯이 부디부디 사람들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었으면 더욱 좋겠다.

첫눈이 오면 누구나 경건해진다. 첫눈을 보고 기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올해는 북구 장등동 방향의 공원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다. 그곳에서 빼어나고 향에 가고 싶은 이북 5도만의 응어리진 한이 풀어지길 기원하고 싶다.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위로 평평 내려 주길 소망해 본다. 그들의 슬픔이 서늘해 덮여 새살이 돋아나고 포근해지길 바라 본다.

첫눈이 오면 아버지도 뵈러 가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된 딱 지금, 고향 산천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꺼안아 드리고 싶다.

첫눈, 첫눈이 오면 조용히 옛 추억과 함께 어느 교실에서 품고 소리가 들려들 듯하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보들보들 하얀 솜을/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자꾸자꾸 뿌려 줍니다."

社說

‘이재명 열풍’ 속 지역 공약 없어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호남 지역 순회 일정을 어찌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부·울·경 및 충청 지역 순회는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했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4박5일 일정을 소화할 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 경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지역인 데다 최근 민심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게다가 박병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 90%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서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 호남이 없으면 우리나라 민주당의 개혁과 미래가 없다"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대 전환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서는 "호남은 민주당의 '뒷발'이 아니라 민주당의 '족비'이고 '최초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후보는 광주·전남 지역을 두루 도는 강행군을 통해 '이재명 바람'을 일으

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반성과 사과와 메시지도 쏟아냈다. 민주당이 '광주'의 기대,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처절한 반성과 함께 향후 변화와 혁신을 통해 호남의 민심을 다시 얻겠다며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이에 호남 민심도 화답했다. 가는 곳마다 수백~수천 명씩의 지역민이 몰려들어 '대통령 이재명'을 연호했다. 닷새간 이어진 이 후보의 광주·전남 순회 일정은 일단 그동안 미지근했던 호남 민심을 달궈 '이재명 열풍'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방문에서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껏 몸을 낮춰 지지를 호소했지만 지역 대선 공약 등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호남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고 싶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지역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월패드' 보안 대책 강화

최근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 주택 관리용 단말기)를 해킹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월패드란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도어락·조명·냉난방·환기 시설 등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제어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벽면에 부착된 스마트홈 기기이다. 한데 해커들이 여기에 달린 카메라를 해킹, 입주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는 해킹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 아파트 700여 곳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 그 안에는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도 10여 곳도 포함돼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입주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 외국 웹사이트에 국내 아파트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까지 올라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월패드가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물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월패드는 전체 세대가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경우가 많아 한 세대가 해킹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홈 기기의 사용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안이다. 편해진 만큼 개인 정보도 쉽게 빼돌릴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보안 대책을 철저히 하고, 세대별로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용자들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를 가려 두고 짐작하기 쉬운 암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無等鼓

빨강과 파랑 물감을 혼합했을 때 나오는 색깔은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미국의 경우 보수인 공화당(빨강)과 진보인 민주당(파랑)을 '통합'하는 색깔로도 쓰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보라색 넥타이를 댔고, 참석자들도 보라색 의상을 주로 착용했다. 두 정파의 상징색을 혼합한 보라색으로 '화합' 메시지를 보여 준 것이다.

신안군 안좌면에 있는 반월도·박지도는 '퍼플(Purple)섬'으로 불린다. 안좌도로 보행용 나무 다리로 연결된 두 섬은 온통 보라색이다. 두 섬을 잇는 915m 길이의 보행교

를 걸으며 보라색을 즐기기 위해 매년 수천 명이 찾는다. 보라색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아이 퍼플 유'는 BTS(방탄소년단) 앨범 뷁가 만들어 낸 말이라고 한다. 일곱 빛깔 무지개의 마지막 색처럼 '끝까지 함께 사랑하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라해요!'는 '아미'(BTS 팬) 사이에서 '서로 아껴 주고 의지하고 사랑해 주자'는

의미로 통한다.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보라빛으로 물들었다. BTS 대면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Permission to Dance on Stage)-LA'가 지난 27·28일에 이어 12월 1·2일(현지시간) 소파이(SoFi) 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직접 가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에 팬들이 올린 여러 영상을 통해 공연 현장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5만여 명의 이들은 BTS의 노래와 춤에 맞춰 응원봉(아미)을 흔들며 공연을 만

끽했다. BTS의 보라색은 종교와 이념 같은 것을 녹이는 한국 공통의 색깔이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 내게 하는 마음의 백신이었다. BTS는 '온'(ON)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언제나 우린 그랬으니/ 설령 내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 파문하지 않는 이상/ 그저 그런 해프닝쯤 될 거란 걸/ Win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기고



임원식
광주여중 회장

광주시는 지난 11월 25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에서 '2021년 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문학 등 4개 부문에 선정된 5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광주문화예술상은 한국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과 발전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인 박용철·김현승·정소파를 기리는 문학상을 비롯해서 임방울 국악상, 허백련 미술상, 오지호 미술상 등이 그것이다. 1992년 오지호 미술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0년째 시상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9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상은 작년에 정소파문학상, 허백련미술상 분상, 오지호미술상 특별상, 임방울국악상 특별상에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었다. 올해에도 역시 김현승문학상, 허백련 미술상 분상, 오지호미술상 분상, 임방울국악상 분상에 후보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이는 수많은 수상 대상자 중에서 적합한 수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상에 대한 권위와 매력에 접점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달아 이 상에 대한 호응도도 갈수록 떨어져 접수자가 아예 없는 부문이

‘광주 문화예술상’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많은 것이다. 이번에도 접수 기간 마감 후 접수자가 없는 분야가 많아서 2차 추가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상의 2개 분야에 아예 한 사람의 접수자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이는 이 제도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광주문화예술상이 갈수록 그 권위를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상금이 없기 때문이다. 문학의 경우 저서 발간, 미술은 전람회 개최, 국악은 공연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간 있을 뿐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천500만 원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수상 다음 해에 기념 초대전, 기념 공연, 기념모집 발간에 소요되는 지원금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규정을 들어 상금을 아예 없애 버렸다. 시상금이 없는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천된 후보자의 숫자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수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 상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행이라고 하는 광주광역시의 권위마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예술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예술가의 이름을 붙인 예술상이 많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 주는 예술상처럼 상금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지방의 문인 이름을 딴 문학상만을 예로 들어 보겠다. 강진의 '김영랑 시문학상'(3000만 원), 곡성의 '조태일시문학

상'(2000만 원), 순천시의 '김승옥 문학상'(대상: 5000만 원, 우수상 6명: 3000만 원), 담양군의 '송순(면양정) 문학상'(대상: 2000만 원, 우수상: 1000만 원), 나주시의 '백호임제 문학상'(분상: 2000만 원, 나주문학상: 500만 원), 해남의 '고산(윤선도) 문학상'(시: 2000만 원, 시조: 2000만 원) 등이 모두 적정한 상금을 걸고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이웃 전남 지역의 문학상에 국한하여 사례를 든 것일 뿐,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더욱 많은 문화예술상들이 상당한 상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것은 노벨상이다. 노벨상이 그만큼 권위를 갖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상금이 한화로 13억 원에 달하고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금도 중요하지만 수상자의 선정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예술인 스스로가 자천하는 방식보다는 사계에서 두루 인정하는 후보를 가릴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 상이 예행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시행하는 상이요, 광주가 낳은 훌륭한 예술가들이 박용철·김현승·정소파·허백련·오지호·임방울의 이름을 내세운 상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이 상들이 더 이상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은 권위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를 전반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